

폐자원 유용화 가능한 미세조류 발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1개 섬·토양서 21종 확보 하수 처리·유용 생물소재 생산 등 탄소중립 실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최근 수생태계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을 영양분으로 삼아 없애고 동시에 바이오연료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섬·연안 유래 미세조류를 발견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1일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섬·연안 야생생물자원 활용 응용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목포시 일대의 섬과 토양에서 미세조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영양화는 하천·호수 등 수생태계 내에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조류(녹조)가 크게 발생한다.

연구진은 목포시 고하도를 포함한 21개 섬의 해수, 갯벌, 토양에서 발견한 미세조류 21종 중 진도군에서 확보한 배양체에서 신종 ‘글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 JD1-1’를 선별했다. 이 미세조류의 생활하수·축산폐수 처

리 능력을 실험한 결과, 총질소 57.1-204.2mg/l의 폐수는 12일 동안 82%까지, 총인 0.3-12mg/l의 폐수는 7일 동안 99%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미세조류는 질소와 인을 영양분으로 삼아 배양액 1g당 약 7-10%의 지질이 함유된 ‘생물 에너지원(바이오매스)’을 생산했다.

연구진은 이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한다면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합성 과정에서 1l 당 하루에 0.06-0.1g의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내

는 생물자원으로 잠재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폐자원 유용화 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을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인 ‘환경관리저널(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섬·연안 생물자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의 시작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생물자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폐자원 처리 비용 저감과 소재 활용 확대 등 융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대불산단내 기관 방문

조선업 관련 6개 기관으로 청취...현안 해결 박차

영암군은 21일 “우승희 군수가 최근 대불국가산단 내 기업협의회, 조선업 혁신기관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

우 군수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를 시작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 대불산학융합원 등 6개 조선업 주요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현재 군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을 공유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을 실시했다.

특히 국내 인력의 조선업 기피 현상과 외국인 근로자 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 등 인력 수급 대책 ▲전남 서남권 산

단대개조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 등 현안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산단 내 기관에 영암쌀 사주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추석 명절 관내 농·축·특산물 애용 협조를 당부했다.

우승희 군수는 “최근 조선업 회복기를 맞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대불산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대불산단이 다시 뿔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산단 내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노안면 감정마을회관에서 두번째 ‘찾아가는 민박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제공>

윤병태 나주시장, 두번째 민박간담회 ‘주목’

노안면 감정마을회관 방문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마을주차장·배수로 설치·버스승강장 이전 등 건의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달 반남 자미 마을에 이어 두 번째 민박간담회 장소로 광주와 나주 최경계선에 위치한 노안면 감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눴다.

나주시는 21일 “최근 노안면 감정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민박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 인접한 노안면 외곽지역에 위치한 감정마을은 총 22가구 40명

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조선시대 말경 암반수 샘이 있어 터를 잡고 마을을 형성했는데 암반수에서 나온 우물물이 좋아 마을 이름을 ‘감정’(甘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오후 8시께 편한 점퍼 차림으로 마을회관에 들어선 윤 시장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박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다.

윤 시장이 일과 후 저녁 시간대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두 번째 민박간담회 자리에는 박창기 노안면장과 감정마을 박종달 노인회장, 강남수 이장, 이운순 부녀회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화를 통해 주민들은 주차 공간 협소, 상습적 침수 문제 해소를 위한 마을

공영주차장·배수로 설치를 비롯해 1차선 마을 진입로 확·포장, 노안-광주 방향 노후 된 버스승강장 이전, 마을회관 TV·에어컨 교체 및 게시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늦은 시간에 피곤할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마을 현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미처 못하신 말씀은 시청 방문이 어렵더라도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꼭 받아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자주 가보지 못했던 외곽진 시골 마을 주민들과 만나 해묵은 마을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신안군, 섬 담장 등록문화재 추가 지정 추진

가거도대리·도초면고란·우이도예리

신안군은 21일 “지난해 9월부터 섬 담장을 등록문화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거도 전동 담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가거도대리마을(사진), 도초면 고란마을, 도초면 우이도리 예리마을 등 3개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태고의 순수가 잘 보존된 곳이다. 대부분의 담장은 마을 안길에 있으며 마을의 변천사와 섬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도초면 우이도리는 조선시대 선장이



남아있을 정도로 섬 문화원형의 보고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예리는 한동안 공동화된 마을로 섬마을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이다. 도초면 고란마을 담장은 축간채와 연결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전통 담장에 담긴 섬 사람들의 지혜와 가치를 입증해 등록문화재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진도아리랑상품권’ 추석 10% 할인 판매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역 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개인당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쳐 월 7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

다. 가맹점주는 카드형만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은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착(chak)앱’을

통하거나 관내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카드 발급·충전이 가능하다.

앞서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판매액 200여억원, 환전액 185여억원으로 집계돼 집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예산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할인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만큼 건전한 상품권 유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박세권기자

강진 마량 신마항→‘강진항’ 명칭 변경


강진군은 21일 “강진군 마량면 소재 신마항의 명칭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신마항의 ‘신마’라는 지명은 항이 소재한 마량면의 마을 이름으로 신마항은 국도, 지방도, 군도가 방사형 형태로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1998년 2월 연안항으로 지정된 이후 2

010년 12월 신마항 건설공사가 착공돼 접안시설, 방파제, 조병탑, 배후부지(1만6천㎡) 등을 갖춘 항으로 2016년 3월 준공됐다.

주민들은 국가어항인 마량항과 함께 신마항을 서남해안권 종합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유지명인 ‘강진’을 사용한 항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시했다. /강진=정영록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하남지국 951-9954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